

# 이스라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 이스라엘(State of Israel)

### I. 일반개황

면적	21천 km <sup>2</sup>	G D P	1,640억 달러(2007년)
인구	7.2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22,780 달러(2007년)
정치체제	공화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New Israeli Shekel(NIS)
대외정책	친미, 시오니즘	환율(달러당)	4.11(2007년)

□ 지중해 동부연안에 위치하여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과 접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비슷한 국토면적과 7.2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소국이나,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하이테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1인당 GDP가 20,000달러를 넘는 고소득국임.

□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통한 유대인 독립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후, 인접 아랍 국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국가 안보기반을 공고히 하고, 역내 경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레바논과의 갈등,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등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제성장률	5.0	5.1	5.2	5.4	4.2
재정수지/GDP	-3.6	-1.8	-0.9	0.0	-0.7
소비자물가상승률	-0.5	1.4	2.1	0.5	4.7

자료: IMF, EIU

#### □ 견실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06-07년 이스라엘 경제는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 증대,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수출 증가세 지속,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각각 5.2%, 5.4%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의 경기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내수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4%대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 □ 재정수지 개선 추세

-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 및 긴축정책 추진, 경제회복에 따른 세원증대 등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2007년에는 균형을 기록하였음.
  - 재정수지/GDP: -1.8%('05) → -0.9%('06) → 0.0%('07)

- 그러나 2008년에는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재정지출이 수입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는 GDP 대비 0.7%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관리목표 이내 수준

- 이스라엘의 소비자물가는 미 달러화에 대한 세켈화 강세에 따른 수입 단가 하락, 주택 가격 안정,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정부의 관리목표인 3% 이내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미 달러화에 대한 세켈화가 2007년을 절정으로 약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 소비자물가는 2008년 4.7%, 2009년 2.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보유자원 미비와 협소한 시장 규모가 제조업 성장의 제약 요인

- 이스라엘은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타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초 보유자원이 미약함. 아울러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마찰로 인한 만성적인 안보 불안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 이외의 여타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비('06년 기준): 서비스업(66.6%), 공업(30.8%), 농업(2.6%)
- 대외거래 또한 수출 시장의 제약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총 수출의 약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 [성장 잠재력]

### □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산업 경쟁력 보유

- 이스라엘은 우수한 인력과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 과학 기자재, 전기전자, 항공기 부품, 첨단 군사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상기 하이테크 산업의 수출이 총 수출의 50% 가량을 점하고 있으며, 주변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들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해외투자가 유입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스라엘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정책성과]

###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이스라엘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스라엘 거대 국영은행인뱅크 레우미(Bank Leumi) 지분의 10%를 외국금융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 3대 은행인 디스카운트 뱅크(Discount Bank Ltd.)의 정부지분도 매각하였음. 2007년에는 국영 정유회사인 Oil Refineries Haifa 지분의 44%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나머지 56%는 기업 공개(IPO)를 통해 매각하는 등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옴.

###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강력한 긴축재정 운용

- 이스라엘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긴축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03년 총 GDP 대비 5.6%에 달하던 재정적자 비율은 2007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 중앙정부는 경제성장 지속으로 세원이 확대되고 정부수입이 늘자,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음. '04년 18%에 달하던 부가가치세(VAT)를 '07년 15.5%까지 인하하였으며, '03년 36%에 달하던 기업세도 '07년 29%까지 감축시킴. '08년에는 지급급여세(Payroll Tax)와 매상세(Sales Tax)를 전면 폐지할 계획임.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 상 수 지	2,662	3,981	8,078	4,523	2,565
경 상 수 지 / G D P	2.1	3.0	5.6	2.8	1.3
상 품 수 지	-3,157	-4,148	-3,846	-6,011	-7,949
수 출	36,331	39,722	43,279	49,779	52,207
수 입	39,488	43,870	47,125	55,790	65,156
외 환 보 유 액	27,094	28,059	29,153	28,519	38,927
총 외 채 잔 액	78,674	77,534	86,658	89,582	90,511
총 외 채 잔 액 / G D P	62.6	58.2	60.3	54.6	44.7
D . S . R .	10.4	12.2	12.1	13.2	11.7

자료: IMF, EIU

####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상품수지는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한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IT 산업 호조에 따른 서비스 수출 확대, 해외근로자 송금액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래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음. 2006년에는 관광산업 호조로 서비스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레바논전쟁의 여파로 서비스산업이 다소 위축되는 현상을 보임.
  - 상품수지: -41억 달러('05) → -38억 달러('06) → -60억 달러('07)
  - 서비스수지: 37억 달러('05) → 44억 달러('06) → 33억 달러('07)
  - 소득수지: -16억 달러('05) → 1백만 달러('06) → 0 달러('07)
  - 경상이전수지: 60억 달러('05) → 75억 달러('06) → 73억 달러('07)
- 2008년에는 미국 및 EU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관광산업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7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 [외채상환능력]

#### □ 풍부한 외환보유액,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

- 이스라엘은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상원조자금 및 FDI 유입 증가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등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음. 2007년말 외환보유액은 2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38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
- 총 외채잔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이스라엘 정부의 지속적인 외채상환 추진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2004년 62.6%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7년에는 54.6%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평균 12%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총 외채잔액/GDP: 62.6%('04) → 60.3%('06) → 44.7%('08)
- 외채상환비율(D.S.R.): 10.4%('04) → 12.1%('06) → 11.7%('08)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 안정]

##### □ 정치권 신뢰 추락으로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

- 2006년 레바논과의 2차 전쟁이 헤즈볼라 활동 기반 제거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휴전에 이르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실패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군 책임자에 대한 견책성 경질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성추문, 뇌물수수 등 고위 정치인의 비리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6년 10월, 에후드 올메르트(Ehud Olmert) 수상은 중도좌파 노동당의 연립내각 탈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극우파 정당인 Yisrael Beiteinu 정당을 연립정당에 동참시키는데 성공, 이슬람의회(Knesset)내에 연립정당 의석수를 67석(총의석 120석)으로 확대하여 연립정권 유지기반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연립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좌파 노동당부터 극우파 정당까지를 아우르는 연립정권 내의 다양하고 상충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당초 예정된 2010년 10월의 총선 이전에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관계]

##### □ 전통적 대미 안보 협력 강화

-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이스라엘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으며, 우주 방어망 구축, 전략 요격미사일 개발 등 첨단 무기 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 이란,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

-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농축활동 재개가 중국에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란을 레바논 시아파 헤즈볼라의 실질적 지원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팔레스타인과의 대립 지속

-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을 통해 하마스 정권이 수립된 이후, 상호 국가 존재 인정 및 적대행위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평화정착 로드맵 추진이 큰 난관에 봉착하였음.
- 2006년 12월 이후 지속된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하마스파와 파타당 간의 내부 분쟁은 2007년 2월까지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부상자를 내는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악화되었음.
- 2007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양 정파가 공동정부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공동정부 구성안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정식 인정하고, 하마스의 무장투쟁 노선을 공식 포기하는 주요 쟁점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對 팔레스타인 봉쇄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아울러, 비교적 온건파인 현 올메르트 정부가 평화증진 목적으로 국내

강경과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심차게 추진한 일방주의 정책(팔레스타인 정부와의 협의 없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Gaza 지구 일방 철수)이, 철수지역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끊임없는 로켓공격으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으로서 국내의 심각한 비판과 정세 불안에 직면한 실정임.

#### □ 레바논 시아파 헤즈볼라와의 갈등 고조

- 2006년 8월, UN안보리 결의안(1701호)에 의해 제2차 레바논 전쟁이 중단되면서 레바논 사태가 잠시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소규모 테러가 발발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 최근에는 2008년 2월,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이마드 무그니야가 차량 폭탄테러로 살해되면서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단정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다짐, 전쟁 가능성을 선포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3등급 (2006. 10) → 3등급 (2007. 10) 유지
- o S&P : A- (2007. 2) → A (2007. 11) 상향조정
- o Moody's : A2 (2006. 5) → A1 (2008. 4) 상향조정
- o Fitch : A- (2005. 2) → A (2008. 2) 상향조정
- o ICRG : 58/140 (2007. 12) → 63/140 (2008. 11)
- o I.I : 47/174(2008. 3) → 44/177 (2008. 9)
- o Euromoney : 37/185 (2008. 3) → 35/185 (2008. 9)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이스라엘의 견실한 경제성장세 유지, 만성적 재정적자 개선 추세, 지속되는 외채비중 감소 및 외채상환 노력 등을 반영하여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였음.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 3.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2007년말 총 외채는 약 896억 달러 규모로 총 GDP의 55%에 달함.  
외채상환비율(D.S.R.)은 13.2%로 상환 부담은 보통 수준임.
-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자금은 이스라엘 재정 기반의 주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이스라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850	746	970	943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 입	504	542	737	816	반도체, 계측제어분석기 등
합 계	1,354	1,288	1,707	1,759	

주: 2008년도는 11월말 기준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국교수립 : 1962년 4월 9일(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 과학기술협정('94), 문화협정('94), 항공협정('94), 이중과세 방지협약('97),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 협력('97), 투자상호

## 증진 및 보호('99), 해상운송('04)

- 우리나라와의 2007년 교역규모는 17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9억 7천만 달러, 수입은 반도체 웨이퍼, 디지털기기, 의료기기, 통신용기기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약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2008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6건 26,014천 달러

## V. 종합의견

- 이스라엘 경제는 2001-03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2004년 이후 평균 5.3%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해왔으며, 2006년 레바논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한 해외투자 유입 및 수출 증가, 내수증대 등에 힘입어 5%대의 견실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정권 장악 이후, 파타당과의 충돌로 내전 수준 까지 악화된 팔레스타인의 정국 불안 사태는 사우디의 중재로 공동 정부 수립을 통한 안정화의 실마리를 찾고는 있으나, 이스라엘과의 상호인정,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정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2006년 레바논 전쟁의 성과없는 종결과 연이은 비리 스캔들로 현 이스라엘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 연립내각 붕괴와 조기 총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불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54)

E-mail : [yeliekim@koreaexim.go.kr](mailto:yeliekim@koreaexim.go.kr)